

중소기업 규제 사각지대 없앤다

중기부-음부즈만, 49건 규제에 개선안 발표
철도역 임대료 이자 인하·공영흡쇼핑 방송 보장

공영흡쇼핑에 입점한 중소기업은 최소 3번의 방송기회가 보장되며 철도역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 연체·분납 이자가 절반으로 낮아진다. 중소기업부와 중소기업 음부즈만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현장감 중소기업 규제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규제혁신의 주체가 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적극 개선하고, 상시·지속적 규제혁신을 위해 공공기관별 기업협력 시스템을 구축

해 운영하는 것이다. 기업 현장에 기반한 공공기관 규제에 주요개선내용으로는 ▲임대·사용료 등 영업비용 경감(16건) ▲조달장벽 완화 및 공정거래 촉진(12건) ▲기관 고유산업 각종 규제에 개선(21건) 등이다. 개선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역 등 철도자산 임대료의 연체 이자율을 연 12~15%에서 6.5%로 낮춘다. 분납이자율은 연 6%에서 3.5%로 인하하기로 했다. 공영흡쇼핑은 심사에 탈락한 상품에 대

해 재심의제를 도입하고 입점기업에게는 최소 판매방송 3회를 보장해 판매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제제처분을 받은 중소기업은 향후 2년동안 입찰보증금을 현금(보증서)로 납부해야 했던 규정을 경미한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 입찰보증금을 면제한다. 한국공항공사는 대형 상업시설 입찰시 사회적 기업에게 일정 면적을 할당하고 해당 매장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 실증참여기업에 대해 보수시설 사용료는 받지않고 국유시설 사용료를 지원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광고지원 대상인 혁신형 중소기업에 소셜벤처기업 등을 추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지상파 광고 지원율도 현행 200%에서 250%로 조정하고 지원 최고액은 3년간 75억원에서 105억원으로 인상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활력제고는 중기부 및 지원기관만의 책무가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숙제"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보다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봉 음부즈만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적어도 우리나라에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는 없어질 것이다"고 기대한다"며 "공공기관 기업협력시스템을 원활히 착근시켜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과 함께 찾아내고, 적극행정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여수에 특급호텔 '호텔 JCS' 개관 눈앞 지상 12층 객실151실 규모 연말 시범운영

여수에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10여년 만에 특급호텔이 개관을 앞두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여수지역은 관광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고급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 역시 급증했던 터라 이번 특급 호텔 개관 소식은 지역 관광시장의 또 다른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4일 호텔JCS(총지배인 김한주)에 따르면 올 연말에 시범운영을 목표로 막바지 개관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일원에 들어설 '호텔 JCS'는 지상 12층 객실 151실 규모의 특급호텔로 연말에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3월중 등급신청 절차를 거쳐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고급 숙박시설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여수에 10여년 만에 선보이는 최고급 호텔 '호텔 JCS'는 기존 호텔보다 큰 규모의 여유로운 객실은 물론 여수지역 최대 규모의 온수풀 수영장과 대형컨벤션 등 각종 편의시설을 도입해 기존 호텔과 차별화를 시도한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여수 중심에 우뚝 솟아 전 객실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한 '호텔JCS'는 '즐거움과 편안함이 있는 공간(Joyous Comfortable Stay)'이라는 가치관을 담았다. 397㎡(120평) 규모의 최고급 스위트룸부터 가족 단위 투숙객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온돌 객실까지 다양한 형태의 객실을 갖춘 맞춤형 서비스가 특징이다. 해남이가 환상적인 스카이 오션뷰에서 국내 최고의 셰프가 '호텔 JCS'만의 프렌치요리와 이탈리아 요리 등 다양한 메뉴와 프로모션으로 식도락 여행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여기에 남해로 떠오른 일출 조망과 남해안권 최고의 해변이름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여수지역 유일의 특급호텔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특급호텔 개관 소식은 관광시장의 급성장과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추진 중인 여수에 또 다른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호텔 JCS 조감도

얕아진 지갑에 불필요한 씹씹이 줄어

3분기 의류·오락지출 감소...소비문화 현상

지난 여름 소비자들이 옷값과 여행비 씹씹이를 크게 줄였다. 경기침체에 당장 급하지 않은 지출부터 먼저 줄이는 소비 문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의 의류 및 신발 지출(명목·원계열)은 11조1,886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 감소했다. 감소율은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소비심리가 나빠진 2015년 3분기(-2.4%) 이후 가장 컸다. 옷을 사는데 쓰는 돈을 줄이겠다는 소

비자들도 늘어났다. 지난 8월 의류비 지출 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는 93으로,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4월(91)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소비자심리지수란 향후 지출을 더 늘릴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판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수가 100보다 작으면 지출을 줄인다고 답한 이가 늘린다고 본 이보다 많다는 뜻이다. 앞으로 소득이 많이 늘기는 힘들다는 전망에 소비자들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부터 지출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행비가 속한 오락·문화 지출의 경우 소비문화에 일본 여행 취소 여파가 겹치며 증가율이 크게 꺾였다. 3분기 오락·문화 지출은 20조4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했다. 증가율은 2004년 3분기(-0.9%)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았다. 한은 관계자는 "필수 재화가 아닌 분야에서 소비가 줄어드는 등 소비문화 현상이 나타났다"며 "오락·문화의 경우 패키지 여행이 줄며 증가율이 더 낮아졌다"고 말했다. 의류와 오락·문화 이외에도 교육비, 음

식·숙박 분야 지출 증가세도 둔화했다. 3분기 교육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해 2018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음식·숙박 지출 증가율도 3.3%로, 2018년 3분기(3.3%) 이후 최저였다. 반대로 지출을 쉽게 줄이기 힘든 의료·보건은 11.3%, 교통은 1.6% 늘며 모두 지난해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내년 민간소비를 놓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올해 1.9%보다 높은 2.1%로 제시했다. 반면 LG경제연구원은 내년 민간소비가 올해(2.0%)보다 둔화한 1.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농협 전남노동조합은 4일 '베스트 상사상'과 '휴머니스트상' 시상식을 가졌다. 베스트 상사상에 박성범 농협 해남군지부장과 이장진 농협 나주시지부장이 공동 수상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농협 전남노조, '베스트 상사상'

박성범 해남지부장 수상

농협 전남노동조합이 '베스트 상사상'과 '휴머니스트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베스트 상사상은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관내에서 최고의 명예로운 상으로 성숙한 노사관계, 타인을 위한 배려, 함께하는 삶을 살아온 선배에 대해 조합원 추천과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서미애 기자

베스트 상사상은 지난 30년간 동료와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근무지마다 후배들에게 귀감이 된 박성범 농협 해남군지부장과 이장진 농협 나주시지부장이 공동 수상했다. 휴머니스트상에는 후배직원의 멘토 역할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활발히 해온 농협은행 마케팅추진단 김경신 차장이 영예를 안았다. /서미애 기자

"세계경제 이끄는 미래인재로 성장"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
조선대서 FTA 특강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은 4일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학생 80여명을 대상으로 'FTA 시대 관세행정 역할'이란 주제로 특강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광호 세관장은 관세청 및 관세청 소개, FTA 체결현황 및 확산배경,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FTA시대 수출입기업에 위한 관세청의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 상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이 4일 조선대 경상대학에서 무역학과 학생 80여명을 대상으로 'FTA 시대 관세행정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했다. /광주본부세관 제공

세히 소개했다. 또 강의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및 학생들의 향후 진로에 대한 의견 교환 등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김 세관장은 "무역학과 학생으로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미래인재가 되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향후에도 광주본부세관은 FTA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대학과 지속적 정보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ICT 쇼핑 플랫폼

골프장에서, 생활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제품을 큐빙에서 최저가로 만나보세요.

엑스페론이 만든 Vending Machine

QVING

골프용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 구매가 가능하고 43인치 디스플레이 광고를 체험할 수 있는 신개념 자판기입니다.

www.xperon.co.kr 문의 TEL. 02-2070-5009